

## 돌봄불평등 연구를 위한 길을 열다

- 테포 크뢰거의 『돌봄 빈곤(Care Poverty)』

장숙량\*

“딸 하나만 더 낳지.” 종종 엄마에게 투정부리듯 말했다. 암성 통증으로 바닥에서 뒹구는 팔순의 엄마를 다독거리다가, 신경 못 쓴 사이 당뇨병성 발로 발가락 두 개가 검게 썩어 버린 구순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차를 몰고 병원을 향했다. 눈물을 쓱 닦았지만 참담함을 삼키는 것이 처량해서 더 눈물이 났다. 간호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일 년에 최소 열 두 번 이상 당뇨병 환자 발관리의 중요성을 신물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아버지의 양말을 벗겨볼 생각을 몇 개월동안 왜 못했을까. 부축, 운전, 주차, 휠체어, 외래, 검사, 정산, 약, 설명, 그 사이 외로이 집에서 통증을 감당하고 있을 엄마생각... 손이 네 개 였으면, 머리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 아니 형제자매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개인의 경험을 발판으로 연구주제를 삼은 것은 아니다. 노인의 건강과 기능을 연구 주제로 해왔기 때문에 기능장애를 메울 수 있는 돌봄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봄 연구는 어려웠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만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돌봄 결핍 (Care deficit)”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을 때, 많은 동료심사자들은 개념과 정의의 타당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조작적 정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한가득 자아 비판

성 고백을 연구방법론과 논의부분에 추가한 논문은, “여러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게재가 허락되었다. 돌봄도 어려운 데 돌봄 연구도 어려운 게 괜시리 화가 났다.

돌봄 연구를 하고 싶지만 공부할수록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미궁 속이다. 돌봄의 속성, 가치, 철학, 이론, 정치 경제, 개인의 경험을 통한 사회 제도와 정책방향에 대한 주장과 인식, 돌봄 현장의 생생한 서사로 시작하여 복지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거나 함께 하자는 촉구, 여러 서적과 문헌들을 접하였다. 그 이론, 가치와 철학을 가슴에 담고 어떤 연구를 펼쳐나갈 수 있을 지 뚜렷하지 않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현상을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연구자, 보이게 된 것을 통해 변화를 제안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그렇다. 감히 규정하자면 나의 정체성은 건강형평성 연구자이자 노인보건 연구자이다. 건강형평성과 노인보건을 가슴에 품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같은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돌봄 빈곤 (Care Poverty)』은 이런 질문과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훑어보던 중 접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책이다. 여기에 답이 있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서평을 쓰기로 한 이유는 저자 테포 크뢰거(Teppo Kröger) 교수가 나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종착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sjang@cau.ac.kr)

지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중에 만난 느낌을 준다. 책의 서론은 하나의 사례에서 시작한다. 마치 암환자와 장기요양 등급자 부모를 가진 내 모습을 기술한 위의 첫 문장에서처럼 말이다. 핀란드의 한 집에서 화재가 났다. 그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늙기를 희망하였다(Aging in place)’는 부부의 바람이 “조사항목에 체크”되었다는 이유로, 핀란드 정부는 부부의 아들이 여러 차례 신청한 노인주거 시설 입소를 “승인거부”하였다. 그리고 부부는 얼마되지 않아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아들부부는 오랫동안 매일 부모님을 방문했었고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러나 노부부의 안전에 더 좋은 선택은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름으로 거부되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이었을까.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학대, 개인과 가족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해 국가도 돌봄에 관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극을 초래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요인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하려 애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른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통과되고, 지역에서 촘촘하게 돌봄수요를 파악하는 통합판정체계를 작동시키고, 돌봄요구 “판정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서비스들이 일사불란하게 제공된다면, 돌봄민주국가가 실현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사례를 통해 지금 이 시간 한국사회에 사는 연구자가 가진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실천은 연구와 정책 결정을 이끄는 핵심 문제가 되어야 한다. 돌봄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노인이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이들의 요구 중 특히 충족되지 못할 위험은 무엇인가? 정책은 모든 사람의 돌봄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되었는가?” 저자가 던진 연구 질문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겠다. 노년학이나 노인의학, 노인보건 연구문헌들은 대체로 미국 중심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돌봄에 관해 생산되어 왔던 지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뿐더러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의 경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책은 충족되지 않은 돌봄 수요에 대한 연구 목록을 제시해 주려고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기존 문헌으로 실증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나열하는 것에서 그친 것은 아니다. 개념적 탐구도 놓치지 않는다. 미충족 돌봄에 대한 개념, 사회적 불평등과의 연결 시도는 내가 찾던 바로 그 개념정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핵심개념으로 돌봄 빈곤을 설정하였다. 돌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충족되지 않은 돌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로소 가시화 할 수 있었다. 돌봄 격차, 돌봄 결핍 등 유사한 개념과 비교해 가면서 빈곤이라는 용어가 줄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펼쳐보여 준다. 연구자라면 목말라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한 틀까지 친절하게 제시한 것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봄 빈곤의 요인, 과거로부터 도출된 근거와 최신기술과의 접목, 경험적 연구와 사회적 연구의 연결, 불평등과의 연결, 그리고 나서 복지국가 분석을 도입하고 논의하기 시작한다. 노동, 여성, 주거, 의료까지 빼놓지 않고 사회 정책 맥락에서 다룬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지금은 돌봄 문제가 보편적 세계적 현상이며, 건강돌봄의 충족은 우선 요구사항이 되었다. 이용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 사회의 지식을 소개하는 이 책은 지식의 격차를 발견하고 연구의욕을 이끌어 준다. 번역서가 아직 없는 것이 아쉽지만 누구나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오픈 액세스인 것은 큰 장점이다. 함께 번역할 사람만 모인다면 번역서 출간 작업을 해 보고 싶다.